

선거구 광주 8개 유지, 전남·전북 1개 씩 감소

여야, 지역구 253·비례 47 확정...26일 본회의서 처리

총선 D-49 관권기사 3·4·5면

여야는 23일, 제20대 총선의 선거구 확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는 현행(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확정했다. 광주는 현행 지역구(8개)를 유지하게 되고 전남·전북은 1개의 지역구가 줄어 각기 10개의 지역구로 재편된다.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중환 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선거구획정은 지난해 10월말을 인구 산정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은 28만 명, 하한

선은 14만 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며,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한다. 반면, 경북이 2석 줄어든 13석이 되고, 강원, 전북, 전남도 각각 1석씩 감소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가 유지된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획정위가 빨리 획정안을 국회

광주·전남 선거구 개편 예상 방안

광주 동구와 남구 합쳐 동남갑·동남을로 분할

전남 고흥·보성, 무안·신안, 강진·영암·장흥 3개 지역구를 2개로 통합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무안·신안·영암 지역구로 개편

순천·곡성에서 곡성 분리 광양·구례에 통합

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끼리 우선 통합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의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고흥·

보성, 무안·신안, 강진·영암·장흥 3개 지역구가 고흥·보성·장흥·강진, 무안·신안·영암 등 2개의 지역구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곡성 지역구는 곡성이 분리되면

서 인근 지역구인 광양·구례에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동구가 인구 남구와 통합되면서 동남갑, 동남을로 분할, 8개의 지역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임박시한(지난해 12월31일)을 무려 54일이나 남기면서 사상 초유의 선거 실종 사태를 야기, 정치 신인들의 선거 운동이 상당 부분 제약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대로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선 43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다. 이는 선거 37일 전에 선거법이 처리된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늦게 선거법이 처리된 사례로 남게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역 20% 살생부 '친전' 오늘 전달

더민주, 20명 안팎 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 20% 물갈이(컷오프)' 대상 의원들에게 24일 '대외비 친전(親展=편지 받은 이가 직접 퍼봄)'형식으로 해당 사실을 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상 의원에게 전화로도 알릴 예정이다.

23일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홍창선)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 등 공관위원들과 조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하고 컷오프 통보 방식을 논의했다.

배제 대상 의원에게 전달된 친전 안에는 평가 방식과 평가 항목, 평가 결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공천 갈등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 사실이 해당 의원들에게 개별통보될 경우 이들은 48시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 24일 진행되는 공천 면접에서는 이들 의원들이 제외된다. 따라서 더민주는 25일에 공식적으로 '하위 20%'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더민주의 지난해 11월18일 당시 소속의원 127명(지역구 106명, 비례 21명)을 기준으로 컷오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약 25명의 현역의원이 물갈이 대상이지만 이 중 탈당할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될 경우 실질적 컷오프 대상은 10~20명 정도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 컷오프' 이후에는 2차 컷오프가 기다리고 있다. 하위 20%에 속하지 않은 상위 80%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컷오프가 이어진다. 3선 이상 하위 50%, 재선 이하 하위 30%가 컷오프를 위한 정밀심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현역의원 17명으로 국회 교섭단체(20석) 구성에 3명을 남긴 국민의당이 컷오프 대상들에 대해 영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42km 중 38km 지하로

市 '원안 중심형' 방식에 시의회 동의... 사업 추진 탄력

광주시가 지하 설계 위주의 이른바 '원안 중심형'에 가까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에 대해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여지는 과제로 남았다.

윤정현 광주시장 등 시 간부들은 23일 오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해 문태환 부의장, 김민중 산업건설위원장, 심철의 운영위원장,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 등을 만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이날 도시철도 41.9km 구간 중 32.4km는 원안(지하 28.2km+노면 4.2km) 대로 건설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나머지 9.5km 구간은 지하 상층 토피(土皮) 1m 정도 위에 슬래브 덩개를 씌운 형태로 건설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4.2km를 제외한 전 구간이 지하로 통과해 2호선도 사실상 '지하철'이 된 셈이다.

또한, 구간마다 지하 표피는 다르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깊이를 최대한 줄이고,

푸른길 공원 주변 백운광장 고가는 철거하고 2차선 지하 차로를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은 시의원들에게 의사결정이 지연된 과정에 양해를 구했으며, 참석 의원들도 예비타당성 재조사 없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사업비 증액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우려가 있다며 저심도 방식인 원안 중심형, 모노레일이나 트램 도입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해 여론을 수렴했다. 원안 고수를 요구한 시의회는 이날 윤 시장의 설명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탄력이 붙게됐다.

시는 윤 시장이 24일 오전 10시 최종안을 발표하면 늦어도 9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기본계획변경 및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뒤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윤 시장 임기만료일인 2018년 6월 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원점' 사업재검토 등을 요구한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어린이와 태극기...광주시 서구 태극기 동산 조성 23일 광주시 서구청사 앞 정원에 조성된 태극기 동산에서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서구는 제 97주년 3·1절을 앞두고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의 뜻을 기리기 위해 청사 정원에 태극기 동산을 조성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편 1994년 3월 기본계획이 승인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2010년 예비타당성 검토와 두차례 계획변경을 거쳐 2013년말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총연장 41.9km의 확대순환선으로 총사업비 1조9053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 3단계에 걸쳐 2025년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하 깊이가 당초

2.5m에서 하수도와 하천, 지장물 등으로 인해 4.3m로 두 배 가량 깊어지면서 4300여원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는 지난해 3월 기본설계를 중단한 뒤 자문 데스크포스(TF) 논의와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아 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세돌·알파고 대결 규칙 확정 ▶2면
- 4·13 총선 표밭 점검-여수 을 ▶5면
- 개성공단 여파 중·고 교복 대란 ▶7면
- 사람이 문화자산-음악가 정윤성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처™ 기술이 만들어 낸
출출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피부는 신뜻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 유명명화작이나 아티스트의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